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한·일 근대 작가의 개인주의적 주체 비교연구*

- 염상섭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비교를 통해 -

이호규**·권혁건***

차 례

- | | |
|-----------------------------------|---------------------------------------------------------|
| I. 1910년대와 두 작가 | 2.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식민 |
| II.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동양의 두
근대적 개인주의 | 지 지식인의 개인주의 |
| 1. 아쿠타가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에고이즘과 개인주의 | III. 한일 근대 두 작가의 개인주의, 그
향방 -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자
살과 생존 |

국문초록

염상섭(廉想涉, 1897~1963)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 1892~1927)는 근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염상섭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8년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을 통해 서양의 근대를 받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BB022).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아들였다. 이는 곧 그의 문학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일본이라는 같은 공간, 다이쇼 시대라는 같은 시간 속에 있었던 염상섭과 아쿠타가와가 당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근대적 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쿠타가와와는 동양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제국주의적 일본에서 근대적 개인이 겪을 수밖에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 그런 반면 그는 ‘사회적 범절을 조소하면서도 그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지혜’라고 보기도 했다. 그런 딜레마와 갈등 속에서 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 젊은 세대들이 보였던 순응주의 혹은 기회주의적인 세속성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냉소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쿠타가와라는 일본의 근대적 개인이 보이는 독특함이자 보편성이기도 하다.

반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식민지 지식인 염상섭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문학사에서 개인의 문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용어이자 염상섭 본인의 논문을 빌면 ‘개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드러냈다. 그 역시 아쿠타가와처럼 봉건성과 집단성 속에서 근대적 개인이 겪는 불화와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를 솔직하게 그려내는데, 그는 아쿠타가와와는 다른 행로를 보여준다. 그것은 아쿠타가와가 갖고 있었던 냉소를 갖지 못했고, 아쿠타가와가 갖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모국 일본의 근대적 개인과 식민지 백성으로서 근대적 지식인이었던 조선 유학생과의 본질적인 차이였던 것이다.

주제어 : 근대, 식민지, 다이쇼데모크라시, 개인, 예고, 개성, 제국주의

I. 1910년대와 두 작가

염상섭(廉想涉, 1897~1963)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 1892~1927)는 근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염상섭은 1912년부터 1920년까지 8년간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을 통해 서양의 근대를 받아들였다. 이는 곧 그의 문학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일본이라는 같은 공간, 다이쇼 시대라는 같은 시간 속에 있었던 염상섭과 아쿠타가와가 당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를 근대적 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두 작가의 초기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두 작가의 근대적 개인주의가 보이는 동질성과 차이가 지닌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염상섭은 1912년 열다섯 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 때 염상섭은 ‘무슨 큰 꿈을 품은 것도 아니고 학우가 끄는 대로 좋다구나 하고 따라나섰다. 다만 마음의 의지는 먼지가 있던 두 형님이 있었다’¹⁾ 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약 6개월간 일본말 공부부터 하고, 마포(麻布)중학 2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다시 성학원(聖學院) 중학 3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는 성학원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육군장교로 근무하는 만형 염창섭이 있는 교토(京都)에 갔고 교토부립 제2중학에 들어갔다. 도쿄가 아닌 교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쿄는 국제적인 감각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정치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교토는 교도로 보수적이고 일본적인 곳으로 문화적인 곳이다. 교토부립 제2중학교가 일반 미션중학교와 다른 정규 일본중학이었던 점을 생각할 때 염상섭은 교토에서 단연 격이 다른 학교를 다녔음이 판명된다.²⁾ 교토부립

1) 염상섭, <별을 그리던 시절>, 『지성』 겨울호 제2호, 1958, 81쪽.

2) 염상섭이 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말해 놓았듯 일본의 굴지의 학교이고, 게다가 전교생 중 외국인이 오직 그 뿐이라는 것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보수적인 경도의 정규 중학교에서 한국의 설날 행사와 풍습을 그린 수필 <우리 집 정월>을 써 문장력의 칭양을 받은 것도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2중학교는 염상섭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지만 동시에 일본육군 보병 중위인 만형은 수치심을 주기도 하였다. 소설 「만세전」에서도 칼을 찬 형을 만나 그 타락성을 조소하는 주인공은 23세 염상섭의 문학적 투영이기도 하다. 염상섭의 문학, 평론, 수필에 자주 드러나는 위약적 태도, 진지한 듯 하면서도 돌연 비꼬는 듯한 아이러니는 이런 자부심과 부끄러움에서 말미암았다.³⁾

1918년 3월 염상섭은 고토부립 제2중학을 졸업하여 1919년 3월 게이 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에 들어간다. 그 후 염상섭은 횡빈 인쇄공장에서 직공 노릇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이 창간되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임명되어 1920년 그의 나이 24세로⁴⁾ 8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인생은 한 줄의 보들레르만도 못하다(人生は一行のボオドレルにも若かない)’라는 말을 남기고 서른다섯에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이 말은 아쿠타가와가 절친한 동료 문인인 구메 마사오(久米正雄)에게 남긴 유서이자, 그의 상징적 자서전인 <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 첫 부분의 한 구절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아쿠타가와가 문학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으며, 예술을 삶 그 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그가 <라쇼몬(羅生門)>을 1915년 10월, 『제국문학(帝國文學)』에 발표할 당시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작품은 그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으로 손꼽히게 된다. 그 해 12월 대학동급생이자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문하생이었던 하야시바라 고조(林原耕三)의 소개로 구메 마사오와 함께 소세키 산방 목요회(木曜會)에 출석하여 이후 소세키의 문하생이 된다. 1921년 해외 시찰원으로 중국을 4개월여 동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29쪽 참조.

3)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33쪽 참조.

4) 김윤식, 위의 책, 40, 64쪽 참조.

5)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141쪽.

안 여행한 후 <상해유기(上海遊記)>라는 기행문을 연재하고, 1923년 『문예춘추(文藝春秋)』의 창간호부터 2년여 동안 아포리즘 <난쟁이가 하는 말(侏儒の言葉)>을 연재한다. 1926년(34세)에 그는 위장병과 신경쇠약, 불면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수면제 복용량이 늘어나고 환각 증상까지 느끼게 된다.

다음해 <어느 옛 친구에게 보내는 수기(或旧友へ送る手記)>등 유서를 남긴 채 수면제 과용으로 자살하기에 이른다. 그는 유서에서 자살에 대한 동기를 ‘막연한 불안(ぼんやりした不安)’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막연한 불안, 그것은 광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예술과 생활, 여성에 대한 불안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는 2년 내내 죽는 일만 생각해 왔으며, 자살의 수단으로는 미적 견지에서 약을 선택했다고 쓰고 있다.⁶⁾ 그의 작품인 <어느 바보의 일생>에 ‘그는 그의 일생을 생각하며, 눈물과 냉소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단지 발광이나 자살이나 뿐이었다. 그는 해질녘 길을 홀로 걸으면서 서서히 그를 파멸시키려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彼は彼の一生を思い、涙や冷笑のこみ上げるのを感じた。彼の前にあるものはただ發狂か自殺かだけだった。彼は日の暮の往来をたった一人歩きながら、徐ろに彼を滅しに来る運命を待つことに決心した。)’⁷⁾라고 적고 있다.

간단하게 두 작가의 이력을 살펴보았는데, 본 글에서는 1910년대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영향을 끼쳤던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중심으로 당대 사회와 두 작가의 성향과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동질성과 그 이질적 향방을 비교하여 한일 근대 작가의 차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6) 최재철, 위의 책, 143쪽.

7)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六卷』, 岩波書店, 2006, 475쪽.

II.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동양의 두 근대적 개인주의

1905년부터 1925년까지 일어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다이쇼(大正, 1912-1926년의 일본의 연호) 시대에 일본에서 번성했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향과 사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보통 선거제도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에 기초를 둔 의회중심정치, 외교면에서는 무단적인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 사회면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 등 사회권의 승인, 반봉건적 지주소작 관계(地主小作關係)의 폐절, 피차별 부락민의 해방, 남녀평등권 등, 문화면에서는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자유교육, 대학의 자치, 미술단체의 문부성 지배로부터의 독립 등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자유적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운동이 자주적으로 전개되었다.⁸⁾

1918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 일어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한 달 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가 여명회(黎明會)를 결성하여 보통선거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언론과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민중의 실력으로 확대되어 사회주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2년 뒤, 요시히토의 아들 오무로 히로히토(大室裕仁)가 섭정으로 임명되었는데 섭정이 된 지 2년 되던 해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여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한편 지배층은 민중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의회정치를 받아들여 1924년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헌정회의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결국 보통선거법을 실현시켰으나 추밀원·귀족원·군부 등 의회정치를 제약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정치 자유를 제한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정치, 사

8) 下中弘, 『世界百科事典 16』, 平凡社, 1995, 631-632쪽.

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1900년대 약 20년간 한일 양국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사고와 문화를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 변화였음은 분명하다.

근대의 인간은 세계와 개인을 대립적으로 구성하며 자기충족적인 특징을 띤다. 즉 근대 이전의 개인이 집단에 환원되고 수렴되는 하나의 ‘요소’였다면, 근대 이후의 개인은 사회 경제적인 유동에 따라 “사회적 질서 내의 지위”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역할”을 통해 정체화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통해 경제활동과 정신활동의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이야기되었다.⁹⁾ 1910년대 이후 20년대는 식민지 모국 일본뿐만 아니라 그 영향 하에 있던 식민지 조선 또한 근대적 기획에 따라 사회, 경제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 시기에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근대적 작가인 염상섭과 아쿠타가와에게서 근대적 개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특기할 일이면서도 또한 어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사고와 ‘개인’은 근대의 얼굴이다. 근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이합집산을 보장하는 만국공법의 신질서이며, 봉건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개념이다. 이 근대 기획의 중심에 ‘개인(Individual)’이 놓여있다. ‘철학적으로 개인주의는 개인을 목적 자체로 보고 개별적 인격의 행복과 그 전면적 전개에서 그것의 최후의 목적을 보거니와, 사회와 국가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의미로써만 고찰’¹⁰⁾된다. 즉 개인은 ‘인종, 민족, 정당, 가족 혹은 결사, 그 무엇에도 개의치 않는’ 어느 것에도 환원되지 않는 자아¹¹⁾로서, ‘특수한 정치적 정체성에 자유로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체이다.¹²⁾

9) 박숙자, 『한국문학과 개인성』, 소명출판, 2008, 27쪽.

10) 정호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중성」, 계간 『사회비평』, 제22호, 1999, 겨울, 30쪽.

11) 이안 와트, 이시영·강유나 역,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2004, 181쪽.

염상섭과 아쿠타가와는 바로 그러한 독립적 개체로서의 개인, 자율적 개인을 문학의 화두로 걸고 나온 근대적 작가였던 것이다.

염상섭과 아쿠타가와와 어린 시절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중산계층 출신의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라는 것이다. 염상섭의 증조 염재진이 행동지중추부수(行同知中樞府事)이고, 조부 염인식은 벼슬 없이 지냈고, 부 염규환은 군수를 지냈다.¹³⁾ 이 사실로 이 집안이 서울 토박이이고 중산층에 속한다는 점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중산층에 속하고 서울 토박이로 살았다면 응당 현실감각의 날카로움을 갖추고 있음에 틀림없다.¹⁴⁾

아쿠타가와와 아버지 니하라 도시조(新原敏三)는 우유생산·판매업을 하였다. 아쿠타가와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어머니 후쿠(ふく)가 정신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머니 친정인 아쿠타가와 집안에서 외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었는데, 아쿠타가와와 집안은 사족(士族)집안으로 대대로 에도막부의 다도(茶道)를 관장하는 오스키야보주(御数奇屋坊主)일을 해왔다. 따라서 법도를 중시하고 의리와 인정이 두터우며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풍류가 넘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¹⁵⁾ 아쿠타가와는 이런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에도적 봉건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은 훗날 염상섭과 아쿠타가와와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¹⁶⁾ 염상섭은 할아버지가 한자를 가르쳤고, 아쿠타가와 역시 집안의 영향(아쿠타가와 가의 영향)으로 한자를 많이 익혔다.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를 접하기 전, 그리고 서양의 근대문학을 접하기 전 어린 시절 두 작가에게 국가, 혹은 집단 즉 집안으로 발현되는 봉건성 다시 말해 전근대적 습속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자연스러

12) 박숙자, 위의 책, 13쪽.

13)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대출판부, 1974, 520쪽.

14) 김윤식, 위의 책, 10쪽.

15) 森本修, 『新考芥川竜之介(改訂版)』, 北澤, 1977, 140쪽.

16) 김난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8, 295쪽.

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교육과 사회 풍조는 그들로 하여금 개인과 자유, 그리고 문학을 알게 한 결정적 동인이었다.

염상섭에게 근대는 어떤 의미였는가? 염상섭에게 근대란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한 해방자 즉 개인의 해방이었다. 도일은 조선사회의 질서였던 성리학, 주자학적 세계질서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즉 염상섭에게 자유를 주었다. 전 근대적인 것,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일본 유학생 염상섭에게는 동경이라는 자유의 근대 세계의 한복판에서 주체의 자기보존과 자기파괴라는 주체성의 파토스를 경험하였을 것이다.¹⁷⁾ 그 자유의 나라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받은 식민모국 일본의 분위기는 일본의 신문잡지를 통해 세계 정세를 읽고 있던 조선인들을 고무시켰다. 그리고 한국 사상 최초의 전국적·전 민족적 민주운동인 3·1운동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세계 개조의 시기는 독립운동에 의미가 있다”는 결심을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리고 그 환경에서 아쿠타가와 역시 벗어나 있지 않았다.

1. 아쿠타가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에고이즘과 개인주의

아쿠타가와와는 청년기에 첫사랑이 있었다. 첫사랑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아쿠타가와와는 전통사회의 명분을 내세우는 양부모와 이모의 반대로 첫사랑인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라는 여성과 파경을 하게 된다. 아쿠타가와와는 이 사건으로 가족의 이기주의를 느끼는 계기가 되고 전통사회의 명분에 의해 현실과 타협하여 이룬 결혼생활은 봉건적 가족제도 하

17) 김형수, 『염상섭, 예술, 근대성 -1920년대 염상섭 비평-』, 『사람어문연구』 12집, 1999, 3-5쪽.

18) 박노자, 「한국적 근대 만들기 IV - 1920년대의 ‘타이쇼 데모크라시’형(型)개인주의 : 염상섭의 『만세전』」, 월간 인물과 사상, 2002, 4월호, 79쪽.

에서 대가족 구성원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야요이와의 과정은 아쿠타가와에게 가족의 이기주의를 느끼게 함으로써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에고이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사건 이후 아쿠타가와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과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을 들여다보게 된다.

아쿠타가와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타마치(下町)의 봉건적 가정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이에(家)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돌아보아야 했다. 이렇게 성장한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소신보다는 이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아쿠타가와와 역사소설류는 모리오가이와는 다른 당시 현대인의 심리를 도입한 역사소설 방법이며 <라쇼몬>이 그 대표적인 작품¹⁹⁾’이라고 평가받는데, ‘개인의 선(善:이익)이라는 목적을 행동의 의무, 올바른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에고이즘을 정의할 때, <라쇼몬>에 드러나는 에고이즘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1915년 발표된 그의 초기작이자 출세작인 <라쇼몬>은 도둑질을 하려고 상경한 사내가 라쇼몬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노파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것을 보고, 시체의 옷과 노파의 옷, 노파가 뽑은 머리카락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라쇼몬>에 나타나는 계년(下人)의 의식의 변화가 과연 아쿠타가와와 다이쇼 시대의 속물적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인간의 에고이즘에 대한 비판의식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냉소적 시선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 본질에 대한 아쿠타가와와 성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한 시선이 시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

19) 조경숙, 「의식화되어가는 텍스트로서의 세 『라쇼몬』 고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東北亞細亞文化學會 東亞細亞日本學會 聯合 國際學術大會, 2008, 11, 71쪽.

라도 결국 다이쇼 시대에 아쿠타가와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인식임은 분명하다.

후대에 구로자와 아키라가 《라쇼몬》영화를 만드는 데 <라쇼몬>과 함께 원작으로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덤불 속(藪の中)>(1922)에서 작가는 한 살인 사건을 여러 인물의 제각각 다른 진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시각과 인식의 상대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각각 다른 인물의 진술로 인해 독자는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아쿠타가와가 보이고자 하는 것이 사건의 정확한 전말이 아니라 한 사건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만의 해석을 통해 각각 다른 사건의 전말을 믿고 있는 인간들의 개인주의, 의식의 상대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일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인식의 상대성을 통해 인간의 예고이즘, 개인주의적 성향을 여전히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그러한 성찰은 봉건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개인주의자 아쿠타가와가 지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냉소이면서 다이쇼 시대, 현실 타협적이기적 개인주의의 풍조가 더욱 분명히 강화시켜버린 것일 터이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내부 지향성이라는 점에서는 개인주의와 유사하나, 이에 대한 대가로서 타자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과 나아가 타자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구별’²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쇼몬>이나 <덤불 속>에서 아쿠타가와가 그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개인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주의, 즉 저질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에로 표상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했던 아쿠타가와가 다이쇼 시대 신세대들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속물적 타협주의에 다시 좌절하고 실망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냉소로 드러났던 것은 아닐까.

20) 정호근, 위의 글, 37쪽.

그 냉소는 결국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전이되지만, 그는 다이쇼 시대의 동시대인들이 보였던 예고이즘, 그리고 정반대의 지점에 놓여 있던 제국주의와 그로 인한 집단주의, 그 어느 쪽에도 생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이쇼 시대에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고 그는 스스로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했던 것.

<고독지옥(孤獨地獄)>은 1916(大正5)년 2월에 발표된 작품으로, 초기작에 해당한다. 어머니가 종조부(從祖父)에게서 들은 옛 이야기는 기껏해야 6장 정도의 단편이지만 여기에는 아쿠타가와와 ‘고독’과 ‘지옥’의 편린(片鱗)을 엿볼 수 있다.²¹⁾ <고독지옥>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액자 소설의 형식을 통해 작가는 기실 근대인의 인간상, 개인주의적 근대인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내화에 해당되는 젠초(禪超)의 이야기는 시간적 배경이 막말로,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자체가 소설의 핵심은 아니다. 아쿠타가와는 <난쟁이가 하는 말>에서 거대한 일본의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을 작은 난쟁이로 표현함으로써 아포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난쟁이가 하는 말은 아쿠타가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이 책에서 ‘최고로 좋은 소설가는 “세상 물정에 밝은 시인”이다’(‘最も善い小説家は“世故に通じた詩人”である’)²²⁾라고 말하였다. 아쿠타가와는 위의 말처럼 시대의 상황과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잘 이해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시인을 최고로 소설가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타가와와 소설 <고독지옥> 또한 1910년대 시대 상황과 개인의 삶을 반영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화자인 ‘나’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종조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

21) 大正文学研究会, 「近代作家研究叢書1 『芥川龍之介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1990, 265쪽.

22) 芥川龍之介, 「芥川龍之介全集 第七卷 『侏儒の言葉』」, 筑摩書房, 2007, 246쪽 참조.

야기는 막말의 1857년의 이야기로 그 진위조차 알 수 없다.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종조부의 이야기의 시간의 거리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화자인 ‘나’는 종조부의 이야기를 단지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법 하다며 생각만 할 뿐이었다. 이 시간의 차이만큼 ‘나’와 종조부의 이야기는 멀어져 있다. 시대의 상황, 사상의 차이 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16년을 현재라고 생각했을 때 막말의 1857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막말이라고 하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시기 즈음 이라고 할 수 있다. 1916년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나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외화의 화자인 ‘나’와 내화의 젠초, 두 사람의 시간적 거리와 그로 인한 사상적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고독지옥>에 등장하는 젠초라는 인물은 혼고(本郷) 근방의 어느 선사 주지이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젠초가 선사 주지라는 것이다. 선사(禪師)는 선정(禪定)에 통달한 승려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또한 주지(主持)는 불교에서 사찰의 관리권을 가진 승려이다. 이렇듯 젠초는 선정에 통달하여 덕이 높은 승려에게만 부여되는 선사로 절의 관리권을 가진 직책 또한 높은 승려이다. 이런 젠초는 요시와라(吉原)의 다마야(玉屋)라는 술집의 표객(嫖客)²³⁾이 되어 다야마의 니시키기(錦木)라는 창녀와 정이 들었다. 그 당시의 승려는 고기를 먹거나 아내를 얻는 것이 승려에게 금지되던 시절이었다. 불법(佛法)에서 금지 시키고 있는 승려로써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젠초는 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이라는 곳은 승려들이 불상을 모시면서 고기를 먹거나 아내를 얻는 것조차 허락 되지 않으며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고도의 불법을 지키며,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펼치는 곳이다. 하지만 젠초는 기하지초(黃八丈)²⁴⁾ 기모노에 부드러운 검은빛 비단으로 가문(家紋)까지 새겨 넣은

23) 표객(嫖客) 유곽이나 술집을 드나들며 유흥을 즐기는 사람.

24) 도쿄도(東京都)의 하치조지마(八丈島)에서 만든 특산품이었던 데서 생긴 명칭으로 노란 색 바탕에 다갈색 줄무늬 격자무늬 등을 넣은 견직물.

차림으로 사람들에게는 의사라고 칭하고 있었다.²⁵⁾ 젠초는 승려복을 벗고 가문까지 새겨 넣은 기모노를 입음으로써 비로소 세상 속으로 나와 개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속박하는 불법은 잊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는 한 개인이 되는 것이다. 근대가 표방하고 있는 근대의 정의는 바로 ‘개인’이고 이 ‘개인’은 ‘자유’를 뜻 하는 것이다. 봉건주의와 전근대적인 집단 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이라는 하나의 개체로써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절은 전근대적인 집단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행위 따위는 용납 될 수 없는 곳이다. 승려라는 사람들은 법도를 따르며 이 교법에 의해서 개개인이 집단이 되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젠초가 적을 두고 있는 이 절은 일본의 전근대사회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봉건사회는 개개인의 개성은 용납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 즉 이에를 위해서 살아야한다. 이에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천황제가 부활하면서 정부는 천황을 신으로 승격시켜야 했다. 이것의 일환으로 이에에 가장(家長)을 세움으로써 가장과 천황을 동격화 시켰다. 가장을 천황처럼 모시는 것, 그것은 곧 천황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것이 제일의 덕목이었다. 이런 전근대적인 집단에서 벗어나 근대로 나아가는 길은 젠초에게는 승려복 대신 기모노를 입고 자신을 승려가 아닌 의사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이 기모노를 입는 것은 절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모든 일²⁶⁾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지내고 있는 나는 생활상에서 본다면 우리 작은 종조부님이나 이 선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25)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一卷 『孤独地獄』』, 岩波書店, 1995, 171쪽 참조

26) 禪超は寧、大酒家である。禪超の方が持物に贅をつくしてゐる。最後に女性に沈湮するのも、やはり禪超の方が甚だしい。(芥川竜之介, 위의 책, 172쪽)

인간이다. 또 흥미 상으로 보아도 나는 도쿠가와시대의 희작이나 우키요 그림²⁷⁾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一日の大部分を書齋で暮してゐる自分は、生活の上から云つて、自分の大叔父やこの禪僧とは、全然没交渉な世界に住んでゐる人間である。又興味の上から云つても、自分は徳川時代の戯作や浮世絵に、特殊な興味を持つてゐる者ではない。²⁸⁾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지내고 있는 ‘나’는 에도시대의 이야기인 종조부와 젠초의 이야기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도쿠가와 시대의 예술 또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와 자신은 조금도 가까워 질 수 없다는 듯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고독지옥에 대한 젠초의 이야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젠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태도로 쓰토(津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설에 의하면 지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근본지옥, 근번지옥, 고독지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네. 그것도 ‘인간세계를 땅 밑으로 500유젠나를 지나면 바로 지옥’이라는 구절²⁹⁾이 있으니까 대개는 옛날부터 지하에 있던 것이 되어 있었겠지.

다만 그 중에서 고독지옥만큼은 산간광야수 아래 공중, 어디에든지 홀연히 나타난단 말야. 말하자면 눈앞의 경계가 바로 그대로 지옥의 고난을 눈앞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 자신은 2, 3년 전부터 이 지옥이 떨어져서 말았어.

仏説によると、地獄にもさまざまあるが、凡先づ、根本地獄、近辺地獄、孤独地獄の三つに分つ事が出来るらしい。それも南瞻部洲下過五百

27) 에도시대에 성행한 풍속과. 주로 화류계 여성이나 연극배우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이 많다.

28) 芥川竜之介, 위의 책, 174쪽.

29) 불교경전 구사론(具舍論)에 나오는 구절로, 南瞻部州란 원래 수미산(須彌山) 남쪽에 있는 인도를 칭하기도 하지만, 인간세계나 현세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젠나(踰繕那)는 거리를 재는 단위이다.

躑躅那乃有其獄と云ふ句があるから、大抵は昔から地下にあるものとなつてゐたのであらう。

唯、その中で孤独地獄だけは、山間曠野樹下空中、何處へでも忽然として現れる。云はば目前の境界が、すぐそのまゝ、地獄の苦艱を現前するのである。自分は二三年前から、この地獄へ墜ちた。³⁰⁾

젠초는 이미 자신이 이 고독지옥에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항상 그 경계를 쫓아 살고 있지만,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날그날의 고통을 잊을 것 같은 생활을 해 나가며 죽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승려복을 벗고 기모노를 입은 젠초는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이 자유에서 젠초는 고독지옥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전근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대신, 속박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잃고 개인적 자유가 가져온 실존적 외로움, 독단자로서 갖는 근대적 개인의 소외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나’가 자기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왜 굳이 하는지는 바로 그 동질성에 있다. ‘나’는 오래 전 젠초의 모습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재라는 공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재는 지식의 공간이고 사색의 공간이지만 혼자 보내는 서재는 외부와 차단된 소외된 공간이기도 하다. 소외된 공간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색하는 ‘나’의 모습은 사변적이면서 외로운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아쿠타가와 역시 고독지옥 속에 살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괴로워해야 한다. 구름빛, 대나무의 속살거림, 참새떼가 지저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모든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느껴야만 한다(人生を幸福にする為には、日常の瑣事に苦しまなければならぬ。雲の光り、竹の戦ぎ、群雀の声、行人の顔、—あらゆる日常の瑣事の中に墮地獄の苦痛を感じなければならぬ。)’³¹⁾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

30) 芥川竜之介, 위의 책, 173쪽.

회의 모든 현상이, 자잘한 사소한 것들까지 아쿠타가와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이다. 가족의 상황, 그리고 사회의 현상들도 아쿠타가와를 지옥으로 빠뜨렸다. 어머니의 발광과 책임져야 할 가족들의 문제들 또한 아쿠타가와가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짐이었다. 이런 짐들로 인해 아쿠타가와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조차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근대가 이루어지면서 개개인의 삶은 더 나아졌다. 하루의 대부분을 서재에서 지내고 있는 소설 속의 ‘나’는 서재에서 소설을 집필하는 아쿠타가와와 모습과 같다.

‘예술도 여자와 같은 것이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한 시대의 정신적 분위기 혹은 유행에 둘러싸여야만 한다(芸術も女と同じことである。最も美しく見える為には一時代の精神的雰囲気或は流行に包まれなければならぬ。)’³²⁾라고 말한 아쿠타가와 역시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 찬 당시의 일본의 정신적 분위기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유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염상섭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 지식인의 개인주의

염상섭은 자신을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보통 인간이고 중간치 정도였지 중뿔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염상섭의 특유한 자기 드러내기 방식으로 기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탁월한 오만과 자만심, 세련과 간사함의 뒤틀림의 소산이다.³³⁾ ‘나처럼 바보는 어떠한가. 나는 바보이거니와, 신동이라는 너는 과연 얼마나 신동인가 한번 겨루어 보자’. 이것이 염상섭이 시종일관 품고 있는 삶의 태도였는데, 그만큼 사실 염상섭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인물이었다. 혼자 시위운동을 벌였던 일은 단적으로 그의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사건이

31)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三卷『侏儒の言葉』』, 岩波書店, 1996, 59쪽.

32) 芥川竜之介, 위의 책, 81쪽.

33) 김윤식, 위의 책, 15쪽.

었다. 그에게 자기 자신, 즉 개인성은 선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였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시대적 의미를 띠고 발현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 발현의 결과가 집안과 민족이라는 집단성과 개인성의 충돌과 갈등이 집약되어 나타난 작품이 <만세전>이었다.

근대의 ‘개(個)’의 감각은 ‘~에서부터’ 벗어나는 ‘독립’의 감각이자 ‘사회’라는 공론의 장에 한 분자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느낌이다. 또한 제국/식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전근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세계 보편의 감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개인의 감각이 조선에서는 ‘개인’과 ‘민족’ 양 편에서 전유된다. 개체 발생이 계통발생과 연동하면서 논의되었던 동양에서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³⁴⁾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적 개인에 대한 성찰을 처음 드러낸 작가가 염상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염상섭의 초기 삼부작이라 일컬어지는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의 핵심적 주제였으며 이후 <만세전>에서 현실과 민족이라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집대성되어 나타난다.

그는 『기독교청년』 제6호(1918.4)에 기고한 「玄相允氏의게 與하여 ‘現時 朝鮮靑年과 可人不可人の 標準’을 更論함」이라는 글에서 그는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는 인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는 현상윤의 글에 대해 반론을 펴면서 사회적 공리만을 최우선시하여 개개인을 “可人”과 “不可人”으로 재단하게 된다면 ‘自己의 使命과 天稟의 才質’을 발견하여 ‘自己의 適合한 順路’를 모색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功名에만 충실한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儒敎의 弊習 혹은 봉건 시대의 표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는 ‘오히려 외견상 ‘社會와 密接한 利害가 엮는 듯한’ 개인의 노력이 실은 가장 긴요한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한다. 문학이나 예술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삶의 표준이란 사회가 아니라 그와 반대로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염상섭 글의

34) 박숙자, 위의 책, 35쪽.

핵심³⁵⁾이다. 즉 ‘염상섭의 비판은 당시 정치나 경제, 법률학에 문예 방면의 전공을 소홀히 하는 유학사회의 세태를 비난함과 동시에 문학예술 등 미적 영역의 자율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³⁶⁾를 보이는 것으로 당시 달라진 신 유학생들의 내적 풍경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는 「개성과 예술」(『개벽』 22호, 1922.4)³⁷⁾에서 ‘노예적 관습’, ‘기성적 관념’ 그리고 ‘偶像의 權威’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건설이 생활의 ‘못토’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현재적 삶의 근거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성’의 자유로움, ‘자기해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글은 현실과 삶의 진실성 확보라는 염상섭 자신의 문학적 이념 선언으로 읽힐 수 있다. 그의 이념적 범주는 부정적 현실, 즉 ‘환멸된 생활’의 인식을 통해 자기 긍정에 이르는 도정 속에 설정된다. 염상섭에게 세계는 언제나 모반의 대상이었다. 이는 실존적 자아의 확립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반역하는 사유 존재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한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명확한 실재인 자아’에 이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그는 이러한 실재로서의 자아가 ‘통일과 완전’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격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근대적 개인주의는 ‘자기 각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출발한다. ‘幻夢적이면서도 暗澹하고 荒涼한 노예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존귀를 실현했을 때 근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염상섭에게 있어서 ‘개성’은 새로운 시대를 규율할 수 있는 ‘稟賦한 獨異의 생명’이었고 그것의 도도한 流露는 개체의 자유와 생명적 욕구가 비약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개성의 가치발현은 비생명적 규범체계를 거부하고 청산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즉 ‘개

35) 이철호, 「1910년대 후반 도쿄 유학생의 문화인식과 실천 - 『基督青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집, 2008.12, 344쪽.

36) 이철호, 위의 글, 344쪽.

37) 이후 염상섭의 개성론에 대한 부분은 곽원석, 「염상섭 문학론 연구(I)-초기 ‘개성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 1999. 2)을 부분 요약한 것임.

성'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생명 실현을 차단했던 '권위와 초자연적 일체'에 맞서기 위해 우선 회복해야 할 인간성이었으며 자각된 개인 그 자체였던 것이다. 염상섭 '개성론'의 실체는, 문학은 계몽적 주체로서의 개성을 발현함으로써 현실 개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성이 윤리적 주체로서 도덕성을 부여받게 되는 순간 그의 개성론은 사회적 역할을 내면화한 현실 變改의 통로를 내포하게 된다.

“묵업는氣分の沈滯와 限업시늘어진생의倦怠는 나가지안는 나의발길을 南浦까지끌어왔다.”³⁸⁾로 시작하는 <標本室의 靑개구리>는 한국 근대문학사에 새로운 소설의 출현을 김동인으로 하여금 직감하게 만든 소설³⁹⁾로, 염상섭의 초기작이자 출세작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사적 의의를 떠나 이미 이 소설에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X군, 즉 소설의 주인공 '나'의 심층의식이다.

명확하지 않은 고민과 우울과 현실에 대한 염증으로 끝없는 무력감과 자살충동에 휩쓸리는 '나'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의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개구리 해부 장면일 터이다. 강제적으로 사지를 못박힌 채 해부실습용이 되어버린 개구리, 이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에 던져져 생활의 피실험자가 되어버린 자신, 즉 개인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상징일 것이다.

그는 세계의 끝, 無限, 무인도, 西伯利亞의 荒涼한 嶺南, 南洋을 꿈꾼다. 현실로부터의 일탈은 그를 남포행으로 이끌고 거기서 그는 친구들이 만남을 원하는 광인 김창역을 만나게 된다. 김창역이라는 광인에게 자신

38) 염상섭, <標本室의 靑개구리>, 『廉想涉全集 9』, 민음사, 1987, 11쪽.

39) 김동인은 당시 <標本室의 靑개구리>를 읽고, “이 사람이 소설을 썼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그 작품을 보았다. 그러나 연재물의 제1회를 볼 때 벌써 필자의 마음에는 큰 불안을 느꼈다. 강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과도기의 청년이 받은 불안과 공포의 변민-〈표본실의 청개구리〉에 나타난 것은 그것이었다. 필자는 상섭의 출현에 몹시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 새로운 하트레트의 출현에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52쪽 - 여기서는 김윤식, 정호웅 공저 『한국소설사』, 예하, 1993, 97쪽에서 재인용)

을 투영시키는 주인공의 의식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근대적 개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무기력한 일상과 우울한 내면에 깊이 빠져 방황하는 고뇌에 찬 개인의 모습은 1921년 같은 해에 <표본실의 청개구리>에 이어 발표한 <闇夜>의 주인공 역시 이유 없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 “完全한 失神狀態에 捕虜”⁴⁰⁾가 된 듯 무기력에 빠져 있지만, 실상 “머리속이 불난 貳貌樣으로 와글와글하며, 空然히 마음이 조비비듯할뿐이었다.”⁴¹⁾ 즉 그의 무기력과 우울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러기 위한 자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의 역설적 태도인 셈이다. 혼자 그러나 즐겁게 연을 날리며 놓고 있는 한 절름발이 아이를 보면서 그는 자신에게 그런 행복도, 노력도 없음을 한탄하지만, 힘들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고민과 행복을 함께 느끼게 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자신 힘들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 즉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근대적 개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주체적 목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근대적 개인의 모습이 구체적 시공간 속에서 뚜렷이 등장하는 작품이 바로 <만세전>이다.

이제 <만세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만세전>은 이전 초기작에서 보이는 “개인”에 대한 작가의 탐구가 1918년, 제목 그대로 “만세전”해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열풍이 휩쓸던 도쿄와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조선인 유학생의 내면과 현실과의 관계를 통해 당대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작품으로, 염상섭의 초기작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교문학적 주제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교토부립 중학을 나왔는데, 큰 형 염창섭이 당시 교토에서

40) 염상섭, <암야>, 『염상섭전집 9』, 48쪽.

41) 염상섭, <암야>, 위의 책, 49쪽.

육군 중위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형은 그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8백 명 전체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특혜는 형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군복자락의 자부심의 문학적 변용이 곧 부끄러움이다. (중략)일변으로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온갖 불합리한 제도적 제약에 대해 저주를 하면서도, 일체가 제공하는 가장 훌륭한 프리미엄을 받아 사용한 염상섭이 위악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삶과 문학적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리라. 삶의 방식에서 그는 어떠했는가. 1919년 3월 19일에 오사카(大阪)의 노동자 대표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쓰고 감옥으로 잡혀 가는 일을 저지른다. 만형의 처지에서 보면 아우의 이러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만형의 시베리아 파병에 항의한 사실과 이것은 맞먹는 것이 아니었을까. 문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기본 주조를 이루고 있다.

<만세전>에서 이 사실이 제일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칼 찬 형을 만나 그 타락성을 조소하는 주인공은 23세의 염상섭의 문학적 투영이다. 그는 그 형을 저주하면서도 긍정하고 있으며, 자기 집안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면서 일본 여인 시즈코(静子)가 있는 도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서 가서 정자(시즈코)나 만나면 이 무거운 기분이 조금은 나을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철저한 위선자이자 위악자의 모습이다. 이처럼 염상섭은 자기의 우월감, 자부심을 내세우면서도 그것을 은밀히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를 인격분열증에서 구출한 것이 문학이다. 위선과 위악을 곁했다는 것, 그것이 염상섭 문학의 최대의 강점이다. 위선과 위악 속에 자기를 놓을 때 세상과 사물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공평하게 보이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염상섭 문학의 최대의 강점이자 또한 “근대적 성격”이기도 하다.’⁴²⁾

42) 김윤식, 위의 책, 33쪽.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 겨울이다.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어서 세상은 비로소 변해진 듯 싶고, 세계개조(世界改造)의 소리가 동양 천지에도 떠들썩한 때이다.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02, 2005, 45쪽)

<만세전>의 첫 부분이다. 주인공인 이인화는 1918년 도쿄에 W대학 문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나오는데, 작가인 염상섭 역시 실제로 1918년 당시 게이오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만세전>의 주인공처럼 일본에서 유학한 염상섭 자신은 물론, 주로 일본(매체나 일본에서의 유학)을 통해 세계 정세를 읽어야만 했던 3·1 운동의 주도자들에게도 세계체제의 새로운 분위기(세계 개조의 소리)를 알려준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일본에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열풍이었다.’⁴³⁾

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소위 ‘개성’은 고찰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일본은 ‘개인주의가 사회·정치적으로 진지하고 자유로운 자아 표현을 하기가 힘든 고질적인 권위주의 사회였다’⁴⁴⁾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 한계로 말미암아 다이쇼의 보편적인 개인주의는 유럽처럼 개인을 억압하는 부르조아 국가 사회의 일체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즐길 것을 충분히 즐기며 사는 ‘틈새찾기’의 삶의 방식을 택했다. ‘모보’(modern boy의 일본식 약어)와 ‘모가’(modern girl)처럼 다이쇼 시대에 장안의 소문거리가 되었던 젊은 개인주의자들은 노조에서 활동하거나 돈 욕심에 물들지 않은 프롤레타리아 미술을 탐구하지 않았다. 대신 카페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성교제와 에로틱 문학, 그리고 서양의 최신 유행 의류 등을 최대한 즐기며 고등교육이 보장하는 ‘출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⁴⁵⁾

43) 박노자, 위의 글, 78쪽.

44) 박노자, 위의 글, 80쪽.

아직까지도 조선 유학생이라면 돈 있는 집 자질이요, 인물 좋다고 동경 바닥서 평판이 좋은데, 문과대학생이 이런 데에서는 장을 치는 ‘태평성대’다. 나는 동창생들에게 끌려 우연히 와본 뒤로 벌써 반년 가까이 드나드는 동안에 이만큼 친숙하여졌다. 이런 자유의 세계에서만도 얼마쯤 무차별적이지요 노골적 멸시를 안 받는 데에, 감정이 녹어지고 마음이 슬깃하여 내 발길은 자연 잦았던 것이다. (54쪽)

이런 점에서 보면 이인화는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산층·유학과 출신의 대다수 ‘신세대’들의 습속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혼제도에 따라 결혼한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무관심을 표할 만큼 사회로부터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논리를 지닌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집안과 충돌을 빚을 의도는 없다. 집안의 후원으로 안락한 유학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화는 ‘스스로가 이지적이고 타산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로, 근대 자본주의세계의 인간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도 그 논리에 맞추어 행동하는 인물이다. 이 근대적 정신의 소유자(더구나 그는 일체의 현실적인 정치적 전망이 봉쇄되어 있는 식민지의 청년지식인이다)에게는, 따라서 민족이니 사회니 하는 것이 틈입할 여지가 없다.’⁴⁶⁾

그러나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45) 박노자, 위의 글, 80-81쪽.

46) 유문선, 「3·1운동 전후의 현실과 문학적 대응」, 『새민족문학사 강좌 02』, 창비, 2009, 103쪽.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끓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긴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87-88쪽)

하지만 이인화가 문제적 주인공으로서 근대적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인화가 단지 '대중문화(특히 성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해주는 카페) 속에서 매우 저(低)차원의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한 데에 만족하며 집단 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질서와의 타협을 모색'⁴⁷⁾하는 데만 그의 인식이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겹겹증이 나서 몸부림을 하는 일종의 발작적 상태는 자기의 내면에 깊게 파고들어앉은 '결박된 자기'를 해방하려는 욕구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 발작의 정도가 한층 더하였다. 말하자면 유형 무형한 모든 기반, 모든 모순, 모든 계류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면 질식하겠다는 자각이 분명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약점에 대한 분만(憤懣)과 연민과 변명이었다. (64쪽)

이러한 개인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초기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나 <암야>에서 보였던 주인공들의 내면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만세전>이 거둔 '당대 현실의 포착은 그 자신까지도 사고와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적 자아(이인화)가 그 냉정한 시선(현실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표상으로서의 근대사회(토오쿄오)와 실재로서의 전근대 식민지(조선)의 낙차를 조망하는 과정 [旅路] 에서 촉발됨으로써(삽화적 구성)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만세전>을 일컬어 여로형 소설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향하는 이인화는 뱃길과 물길을 두

47) 박노자, 위의 글, 86쪽.

48) 유문선, 위의 글, 103쪽.

루 거치며 갖가지 상황과 사건을 보고 겪는다. 소설 자체가 여행일 것인데, 그러한 여행을 아예 대놓고 소설의 구성으로 드러낸 여로형 소설은 곧 처음과 끝, 같은 개인이지만 달라진 주체의 그 변화 양상과 변화 속에 스며있는 은밀한 내면 풍경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당연하다. 이인화는 길을 떠나 길을 가면서 변화한다.

그러나 애초에 비록 관념적이고 따라서 실감이 안 나고 사실 그래서 그의 고민은 자욱한 안개 속이었을 테지만 이인화의 변화의 조짐은 이미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에 기인한다. 그것은 그의 성벽과 1910년대 일본 도쿄의 청년 문화 탓일 것이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詩)니 소설이니 한 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 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93쪽)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문학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과 불안은 구체적인 여행, 감각적인 따라서 실증적인 여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고 그 자각은 대상에 대한 분노로 드러난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추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뒤흔어버려라!’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163쪽)

“무덤”이라는 단어는 이전 작품 <암야>에서 이미 나타났다. 그저 길 거리를 방황하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 주인공은 큰 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숨길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는 “생활이라는 낙인이 교활이라는 이름으로 찍힌 얼굴”을 보며 대체 무엇을 위해 분주히 다니는 것인지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다가 광화문을 바라보며 ‘무덤이다’⁴⁹⁾라고 속으로 부르짖는다. 이는 상당히 자기 판단에 따른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비명이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메아리와도 같다. 그러던 “무덤”이 <만세전>에서는 그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1910년 ‘청년’의 표상 아래서도 또 다른 이름의 개인성이 출현하고 있다. 비루한 식민의 세계를 ‘지식’의 비전을 통해 소유한 자들의 개인성이다. ‘지식이란, 세계와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구획하며 세계의 물질성을 휘발시킨 채 관념적인 상상을 가동시킬 수 있는 매개이다. 그래서 식민의 세계를 낙관하고 개척할 수 있는 의지를 드러내지만, 이들의 지식이 세계의 물질성을 일거에 휘발시키는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⁰⁾ 학교와 1910년대 후반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분위기 속에서 관념적으로 배운 개인이 현실 속에서 피식민 백성으로 자신을 대타화시켜 보여주는 또 다른 자신 즉 조선 백성들을 감각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분노, 그것은 개인이 집단,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과 만나는 현장을 생생히 보고하고 있다.

그 분노는 일본 청년 지식인인 아쿠타가와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 아니 아쿠타가와는 느낄 필요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피식민 백성임

49) 염상섭, <암야>, 위의 책, 53쪽.

50) 박숙자, 위의 책, 16쪽.

을 일순간 식민 모국인 일본 도쿄에서 자유로운 개인성에 빠져 망각하고 있던 조선 청년 지식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그것이 분노라는 사실이다. 이광수처럼 그것은 공허히 여기는 마음, 시혜적 계몽주의를 떠올리는 지도자적 애처로움이 아니다. 그 분노는 잊고 싶었던 나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이다. 그것은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 그 시선에서 생겨난다.

그러기에 ‘만세 전’의 도쿄 유학생 이인화는 아내 장례를 치르자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갈 궁리를 한다. 서둘러 떠나는 그에게 형이 내년 봄에 돌아와 다시 장가들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그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거든요!’(201쪽)하고 웃어버린다. 겨우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 집안과 국가, 민족의 비루한 모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다.

여기서 이 소설 제목이 왜 “만세전”인가가 중요해진다.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만세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 1918년 겨울 한 조선 청년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다면 만세 후, 즉 1919년 3·1운동 이후 이 피식민지 조선 청년의 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논의를 하려면 염상섭의 30년대 걸작 『삼대』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다만 서둘러 도쿄로 떠나는 이인화의 심정은 조선을 무덤이라 외치던 그 분노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염상섭이 ‘묘지’라는 제목으로 썼던 소설을 다시 확장해 쓰면서 제목을 절망적인 묘지에서 ‘후’를 기대케 하는 ‘만세전’으로 바꾼 그 내면을 함께 헤아리는 일이 될 것이다.

따뜻한 봄이 오면 별장이나 장만하겠다고 웃어넘기는 이인화의 심정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어찌면 부끄러움일 것이다.

언젠가 이따위의 산문시줄이나 쓰던, 자기의 공상과 값싼 로맨티씨즘
이 도리어 부끄러웠다.(93쪽)

이미 이인화는 도쿄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관념성과 값싼 로
맨티시즘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그 대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 부끄
러움이 분노를 겪으면서 다시 구체적인 부끄러움으로 전화했다. 그것이
핵심이다.

Ⅲ. 한일 근대 두 작가의 개인주의, 그 향방 -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자살과 생존

1920년대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 유럽에서의 개인주의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중반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화두였던 소위 ‘개
성’은 기실 동질적이지 못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그때 제국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 체제였고 따라서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정치적 권력에
도전하는 개인주의는 용납되지 않았다. 좌익 자체의 내부 권력구조를 포
함해 모든 권력에 부단히 도전하고 모든 상식과 상투적인 틀을 파괴해
야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일본 무정부주의자 오오수기
사카(大杉 栄)에는 관동대지진 때 그는 물론 그의 애인도 함께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1926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정치, 사회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가부장적인 이에(家)에서 양육되고, 학교에선 스승을 섬겨온 세대가 설
사 ‘불온사상’, 예를 들어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잠시 젖어
든다 해도 천황에 대한 충성과 체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
이다. 결국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실질적 풍조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기
득권을 누리는 순응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개인주의로 나타났다.

성향적으로 고독을 즐기고 서재라는 개인적 공간에서 지식을 통해 자신의 예고의 탐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아쿠타가와는 초기 소설에서 인간의 이기주의, 속물적 개인주의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예고이즘, 개인주의가 당대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소외와 고통에 대한 자각을 보인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풍조 속에서 그의 고독한 개인주의는 제국주의적 시각 속에서 세상에 대한 냉소로 드러나지만 그러한 냉소는 결국 그 자신, 우울한 근대적 개인의 파멸로 끝나고 만다.

조선의 역사 속의 인물을 소재로 1924년 발표된 단편⁵¹⁾ <김장군(金將軍)>에서 일본의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조선을 여행하다가 논두렁에서 한 소년의 특출함을 보고 왜국의 재앙이 될 것은 싹부터 잘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살해하려다가 그만둔다. 30년 후 조선과의 전쟁 때, 어른이 된 김응서(金應瑞)는 조선을 구하고자 하는 영웅적 인물이 된다. 왜장 중 하나, 고니시 유키나가는 계월향이라는 기생을 총애하였는데, 김응서의 동생이었다. 어느 겨울 밤, 김응서와 계월향은 주연(酒宴) 자리에서 유키나가를 해한다. 그리고 김응서는 이미 유키나가의 아이를 배고 있었던 계월향마저 죽이고 만다. 아쿠타가와는 마지막 구절에서

어떠한 나라의 역사도 그 국민에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이다. 특별히 김 장군의 전설만을 일소에 부칠 수는 없다.

如何なる国の歴史もその国民には必ず光榮ある歴史である。何も金將軍の伝説ばかり一筋に備する次第ではない。⁵²⁾

라고 이야기한다. 이 구절에서 아쿠타가와와 제국주의적 모습을 엿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자는 바로 이 마지막 문장에 집중하려고 한다. 아쿠타

51) 고영자, 『일본의 지성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357쪽.

52)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卷 『金將軍』」, 岩波書店, 1996, 270쪽.

가와는 이미 『중국유기(支那遊記)』⁵³⁾에서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중국유기』는 1925년 「개조사(改造社)」에서 간행된 작품으로 1921년 3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약 120일에 걸친 중국여행을 담은 기행담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느끼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행문을 살펴보면 아쿠타가와와 관심사는 정치, 경제, 시사보다는 문화, 예술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의 심미성을 지향하는 작가의 견문을 기록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상은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 또 그가 바라본 중국은 서양인이 동양을 묘사하는 방식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도처에 보인다.⁵⁴⁾ 다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그리고 신문사 소속의 작가 아쿠타가와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시대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아쿠타가와가 중국을 방문했던 1920년대의 시대상황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기였다. 특히 중국은 1840년에 발발한 영국과의 아편 전쟁⁵⁵⁾에 패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혼란을 거듭하였으며 태평천국의 난과 5·4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공산당이 창립되는 등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움직임이 곳곳에 보이는 난세였다.⁵⁶⁾ 중국 여행 중 아쿠타가와가 자세하게 적고 있는 곳이 상하이인데, 이곳에는 각국 열강들의 조차지가 많

53) 『중국유기(支那遊記)』는 <상해유기(上海遊記)>:1921년 8-9월에 걸쳐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 연재, <강남유기(江南遊記)>:1922년 1-2월에 걸쳐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에 연재, <장강유기(長江遊記)>:1924년 9월 『女性』에 발표된 미완성 작품, <북경일기초(北京日記抄)>:1925년 6월 『改造』에 발표되었는데 이틀 만에 쓴 작품, <잡신일숙(雜信一束)>:그림엽서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작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일정치 않다, 5부로 구성되어 있다.

54) 김난희, 위의 책, 165-166쪽.

55) 1840~42년, 청조(淸朝)가 아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영국과 청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하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국은 반식민지화(半植民地化)되었다. 「상해유기」에 자주 나오는 ‘조계(租界: 주로 개항장(開港場)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는 열강들의租借地를 말한다.

56) 김난희, 위의 책, 167-168쪽.

이 들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물론 상해는 이미 서구화되어 있었다. 중국 속의 서양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서구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모면하였다. 또한 서구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급격한 서구화를 통해 서양열강의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의 근대 작가 아쿠타가와는 중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일본과는 무관한 듯 서술하고 있다. <장강유기>⁵⁷⁾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날 밤 당가화원의 발코니에서 니시무라와 등나무 의자를 나란히 하고 나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현대 중국에 대해 악평했다. 현대의 중국에 무엇이 있는가? 정치, 학문, 경제, 예술 모두 타락해 있지는 않은가? 특히 예술에 있어서는 가경도광시대 이래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작품이 있는가? 국민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태평락만을 외치고 있다. (중략) 정열이 없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국민적 부패를 목격했다. (중략) 아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

その夜唐家花園のバルコニーに、西村と藤椅子を並べてゐた時、私は莫迦莫迦しい程熱心に現代の支那の悪口を云つた。現代の支那に何かがあるか? 政治、学問、經濟、芸術、悉 墮落してゐるではないか? 殊に芸術となつた日には、嘉慶道光⁵⁸⁾の間以來、一つでも自慢になる作品があるか? しかも國民は老若を問はず、太平樂ばかり唱へてゐる。(省略) 情熱のないのは事實である。私は支那を愛さない。愛したいにしても愛し得ない。この國民的腐敗を目撃した。(중략) ああ、日本へ帰りたい。⁵⁹⁾

일본은 뜻한 바대로 조선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다시 중국을 삼키려는 야욕을 꾸준히 키워왔다. 『중국유기』에서도 보이듯이

57) 1924년 9월 「女性」에 발표된 미완성 작품으로서 중국여행을 다녀온 지 3년이나 지나 썼기 때문에 이 기행문에 대해 독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면서 쓰고 있다. (김난희, 위의 책, 165쪽)

58) 가경도광(嘉慶道光) 이대에 걸친 청대(清代)의 연호. 1796~1851년까지, 청국(淸國)의 최성기.

59)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一卷 『長江游記』』, 岩波書店, 1996, 254쪽.

<김장군>의 마지막 구절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 시키는 수단으로써의 오리엔탈리즘이 농후하게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역사든, 자신들이 조선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는 자신의 역사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6년 <고독지옥>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을 개인주의적 시선으로 본 아쿠타가와와는 1921년 상해 등 중국여행을 통해 오리엔탈리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상해유기>를 발표 한다. 그 후 1924년 <김장군>에서 아쿠타가와와의 제국주의적 의식이 한층 더 짙어진 면모를 볼 수가 있다.

아쿠타가와와는 동양에서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제국주의적 일본에서 근대적 개인이 겪을 수밖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는 <난쟁이가 하는 말>에서 일본의 상투적인 윤리(도덕)을 ‘자본주의에 의해 썩어버린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봉건주의의 윤리’로 규정하였고, 군인들을 ‘이성을 잃은 무책임한 악동’들로 비아냥거렸던 철저한 개인주의자였다. 그런 반면 그는 ‘사회적 범절을 조소하면서도 그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지혜’라고 보기도 했다. 그런 딜레마와 갈등 속에서 그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 젊은 세대들이 보였던 순응주의 혹은 기회주의적인 세속성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냉소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쿠타가와라는 일본의 근대적 개인이 보이는 독특함이자 보편성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단순한 폭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노예 정신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만 노예 정신없이 일본 사회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 혁명을 일으켜봤자 몹쓸 놈과 소수의 바보가 어차피 계속 대다수를 못살게 할 것이라는 냉소는 철저한 에고이스트로 출발한 개인주의자가 일제라는 경찰국가의 억압과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봉건성, 그리고 체제에 순응하면서 혁명성 없는 세속적 자유에 만족하는 세대 모두에게서 느낀 환멸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 자신 맘시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동조를 하기도 했으나

그는 거기에도 기댈 수 없는 개인주의자이자 세상에 대한 냉소주의자였던 것이다. 조선의 식민모국으로써, 서양이고자 했던 동양의 제국주의적 근대 국가 일본에서 ‘개인’에 대해 고민했던 근대주의자 아쿠타가와로 표상되는 일본 근대 개인의 행로는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자로도, 그리고 강고한 제국주의자로도 살 수 없었던 아쿠타가와와는 근대 일본에서의 개인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로를 겪어나갔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감각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식민지 지식인 염상섭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문학사에서 개인의 문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용어이자 염상섭 본인의 논문을 빌면 ‘개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드러냈다. 그 역시 아쿠타가와처럼 봉건성과 집단성 속에서 근대적 개인이 겪는 불화와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를 솔직하게 그려내는데, 그는 아쿠타가와와는 다른 행로를 보여준다. 그것은 아쿠타가와가 갖고 있었던 냉소를 갖지 못했고, 아쿠타가와가 갖지 못했던 것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식민모국 일본의 근대적 개인과 식민지 백성으로서 근대적 지식인이었던 조선 유학생과의 본질적인 차이였던 것이다.

부끄러움은 그로 하여금 더욱 사회와 집단, 국가와 민족과의 함수 관계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천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아쿠타가와와 소설과 다르다. 그의 소설은 철저히 현재적이고 내면적이면서도 언제나 바깥으로 열려 있다. <만세전>이 여로형인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서재라는 혼자만의 갇힌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인화의 행로는 1930년대 『삼대』에서 조덕기로 현신한다. 여전히 개인의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새로운 이인화인 조덕기, 그러나 그를 둘러싼 상황은 이인화의 그것에 비해 더욱 확장되어 있고 따라서 총체적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一卷 『孤独地獄』」, 岩波書店, 1995.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六卷』, 岩波書店, 2006.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七卷 『侏儒の言葉』」, 筑摩書房, 2007.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卷 『金將軍』」, 岩波書店, 1996.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一卷 『長江游記』」, 岩波書店, 1996.
- 芥川竜之介, 「芥川竜之介全集 第十三卷 『侏儒の言葉』」, 岩波書店, 1996.
- 고영자, 『일본의 지성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난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8.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대출판부, 1974.
- 박숙자, 『한국문학과 개인성』, 소명출판, 2008.
- 이안 와트, 이시영·강유나 역, 『근대 개인주의 신화』, 문학동네, 2004.
-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 森本修, 『新考芥川竜之介(改訂版)』, 北澤, 1977.
- 下中弘, 『世界百科事典 16』, 平凡社, 1995.

<논문>

- 곽원석, 「염상섭 문학론 연구(I)-초기 ‘개성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 1999. 2.
- 김형수, 『염상섭, 예술, 근대성 -1920년대 염상섭 비평-』, 『사립어문연구』 12집, 1999.
- 박노자, 「한국적 근대 만들기 IV - 19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형(型)개인주의 : 염상섭의 『만세전』」, 월간 『인물과 사상』, 2002.

4월호.

- 유문선, 「3·1운동 전후의 현실과 문학적 대응」, 『새민족문학사 강좌 02』, 창비, 2009.
- 이철호, 「1910년대 후반 도쿄 유학생의 문화인식과 실천 - 『基督青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집, 2008.12.
- 정호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중성」, 계간 『사회비평』, 제22호, 1999, 겨울.
- 조경숙, 「의식화되어가는 텍스트로서의 세 『라쇼몬』 고찰」,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東北亞細亞文化學會 東亞細亞日本學會 聯合 國際學術大會, 2008, 11.
- 大正文学研究会, 「近代作家研究叢書1 『芥川龍之介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199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aisho Democracy
and Individualistic Subjects of
Korean·Japanese of Modern Writers
- Through the comparison of Yeom Sang-sup and
Akutagawa Ryunosuke -

Lee, Ho-Gyoo·Kwon, Hyuk-Gun

Yeom Sang-sup(廉想涉, 1897~1963) and Akutagawa Ryunosuke(芥川竜之介, 1892~1927) are representative Korean and Japanese writers. Yeom Sang-sup received the western modernity through Japan as he studied there for eight years between 1912 and 1920. This is shown in his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how Yeom Sang-sup and Akutagawa Ryunosuke who were in the same place, Japan and the same time, the period of Taisho recognized their time from the modern individual perspective.

Akutagawa Ryunosuke seems to show a model that a modern individual could not but experience in imperialistic Japan where the Orient made a success of modernization. He was a thorough individualist, and he ridiculed social manners while he considered not making trouble with it as wisdom. In the conflicts with such a dilemma, he was ironically cynical about conformism or opportunistic carnality young generations showed in the period of Taisho Democracy, which is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Japanese modern individual like Akutagawa Ryunosuke.

On the other hand, a colonial intellectual Yeom Sang-sup who accepted a new change sensuously and cognitively while studying in Japan shows the personal problem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a term of Taisho Democracy period, or the problem of 'individuality' in his thesis. He also honestly expresses discord and serious mental panic a modern individual experiences in feudalism and collectivity, but he shows different way from Akutagawa Ryunosuke. He didn't have Akutagawa Ryunosuke's sarcasm and has shyness Akutagawa Ryunosuke didn't have. That was original difference between the colonial country Japanese modern individual and Joseon student who was a modern intellectual as the colonial people.

Key Words : modern times, colony, Taisho Democracy, individual, ego, individuality, imperialism

■ 논문접수 : 2010년 3월 5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